

2026년 7월 10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달러 강세 진정, 원화 안정의 조건

달러/원 환율이 1,500 원 초반대로 내려왔다. 7 월 들어 한때 1,600 원선을 위협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지만, 최근에는 추가 상승이 제한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6 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된 이후 달러 강세가 주춤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전보다 완화된 점이 환율 안정에 기여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주식예약증서) 상장을 앞둔 선물환 매도 계약도 달러 공급을 늘리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대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둔화 흐름을 보인다면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도 한층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이어졌던 달러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국제유가가 이전처럼 급등하지 않는다면 달러 강세를 다시 크게 확대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급 여건도 원화에 우호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 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86 억 1 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5 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약 1,460 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인 1,230 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올해 한국은행 전망치인 2,500 억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경상수지 흑자가 곧바로 원화 강세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기업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면서 달러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화 강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해외 자산보다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며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환경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된다면 원화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며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진정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 강도가 둔화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원화 환전 수요가 확대된다면 달러/원 환율은 1,400 원 중후반대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